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90	↑ 코스닥	723.52
	(+0.85)		(+3.89)
↓ 금리 (미국 9년)	2.490	↑ 환율 (원/달러)	1460.85
	(-0.015)		(+5.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국내기업 인맥 총동원 글로벌 대관조직 강화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D-10
삼성·LG·SK 등 美대관라인 강화
현대차·한화, 외교관료 출신 배치
정부, 민간 합심 대응책 마련
분주 통상쟁점 점검·수출 지원책 마련

이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2주가량 남은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맥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미 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해 대내외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개별 기업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거나 신규 투자를 발표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사실상 정부 기능이 와해상태여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대관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다바이스경협(DX) 부문 경영지원실에서 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GPA)'팀을 실로 승격하고 김원경 실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LG는 2022년 LG그룹 워싱턴사무소를 열고 LG이노텍 법무실장 출신인 임병택 LG전자 전무를 공동 소장으로 임명했다. 같은 해 영업한 조혜인 공동 소장이 트럼프 재집권을 맞아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도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미국 대관 라인을 강화했다. S

K이노베이션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환경과학기술원장으로 영입했다. 김필석 CTO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50여 개 프로젝트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은 미 외교관료 출신들을 승진시키고 대관 조직을 강화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회사 최초로 외국인 CEO인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또 미 외교관료 출신인 성 김 고문을 전력 기획담당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사업 총괄 대표이사인 마이클 쿨터 전(前) 레오나르도 DRS 글로벌 법인 사장을 선임했다. 쿨터 총괄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화그룹의 글로벌 방산 사업 전반을 맡는다. 그는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국방부 차관보 대행·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을 역임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정부도 민간과 합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통상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마케팅 및 각종 인증 등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통상 대응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기능이 사실상 와해 상태로 치달으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신규 투자 발표 등 구체적 행동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김연세, 구남영 기자 kys@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올해 국내 24.3조 역대급 투자

전동화 전환·SDV·수소제품기술 등 불확실성 시대, 핵심 미래역량 확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현대차그룹 투자액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20조4000억원) 대비 19%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현대차그룹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DN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R&D) 11조5000억원 ▲경상투자 12조원 ▲전략투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수소제품 및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 미래역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은 성능과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을 앞세워 전기차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전기차 신모델 개발을 꾸준히 확대하며 전동화 전환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30년 경제형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21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기아도 2027년까지 다양한 목적기반차량(PBV)을 포함해 15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SDV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내재화를 통해 2026년까지 차량용 고성능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상투자는 전기차(EV) 전환 및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 제조기술 혁신, 고객체험 거점 등 인프라 보완 등에 투입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춥다 추워"… 최강 한파에 발걸음 재촉
한파 특보가 발효된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美 인플레이 재확산 우려... 한은, 섴법 복잡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7% 돌파
올해 첫 FOMC, 금리 동결 확실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계획이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이달 한국은행의 금리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 위험 증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의사록에는 "참석 위원들은 최근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및 이민정책의 잠재적 변화가 가려올 영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보편관세, 감세, 불법 이민자대거 추방, 대규모 복지 지출 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게 된다.

또한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채권 발행을 늘려 국제 가격을 하락(국제 수익률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중장기 국제 수익률이 연달아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 윤 '탄핵', 인용 62% 기각 33%... '체포' 필요 59% 과도 37%[NBS]
▲ 이재명, 박정호 무죄에 "판결 환영... 기소행위 엄정 조사·처벌해야" /사진 뉴시스

▲ 여 "공수처 위험적 체포영장 집행 중단... 야 사기 탄핵 시도 멈춰야"
▲ 야6당, '제3차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 이르면 14일 처리

▲ 국힘 경찰청 찾아 "국수본부장, 특공대 투입 검토한 적 없다고 해"
▲ 환경장관 "계엄, 대단히 부적절... 崔대행, 필요한 일 할 것"